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벌써 6월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대축일을 지낸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은 30대는 30Km, 40대는 40Km라더니 이러다 과속이 붙어 점점 빠르게 지나갈까 봐 조바심이 생깁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웃집에 인정 많은 젊은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멀리 볼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이였습니다. 같이 탄 버스에서 처음만나 옆자리에 앉은 마흔 중반의 한 아주머니를

집으로 모셔와 늦은 저녁상을 차리고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어 보니, 그 사람은 경상남도에서 왔는데 평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신자로부터 간질병을 잘 고친다는 유명한 약사가 이 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만사를 제쳐놓고 물어 물어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분은 백가지 약을 다 써도 효험이 없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낫선 이곳까지, 그것도 밤중에 도착되니, 그 약국이 문을 여는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 교회나 찾아가서 밤샘기도를 하고 해가 뜨면 약국을 찾아가 약을 지어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편과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하는데 남편은 아들 병 치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장사를 마치고 오느라 막차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제 집에 가서 밥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시라며 모시고 왔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크게 보였나 봅니다.

사실 낫선 사람을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맘이 아마 그 아주머니에게 전해져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낫을 드시기 전에 알이 꼭 찬 이삭이 되어 하느님 나라에 갈 때 ‘큰복을 울려라.’하며 신명나게 춤을 추고 갈 수 있도록 평소에 덕을 많이 쌓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면 날마다 하느님 나라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웃고 우는 생활 속에, 눈만 뜨면 만나는 가족들,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처럼 씨는 싹이 터서 자라고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낱알이 영글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매일 매일 주님 마음에 드는 생활을 하여 꼭 찬 낱알로 무거운 고개를 푹 숙이는 이삭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옥산 본당 윤정엽 세례자 요한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인내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전례 중에 마음모아 청합시다.

입당성가 : 76번 ‘성체 앞에’ 혹은 440번 ‘주님의 발자국 아는가’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17장 22절-24절

안 내 : 바빌론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과 약속의 말씀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내립니다.

묵 상 : 행백나무 새순이 자라나 온갖 새들이 그 그늘에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었듯이 주님께서서는 부족하고 약한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들도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어야겠습니다.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2독서 : 코린토 2서 5장 6절-10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확신에 차 있다고 합니다.

묵 상 : 하느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으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생각한 것 보다 훨씬 풍성하게 성장하며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4장 26절-34절

강론 :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2번 ‘너그러이 받으소서’

영성체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마음, 작은 선행,
고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침묵>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를 이루려는 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 내가 무시하고 방관 해오던 작은 부분들을 통해
보이는 하느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하느님이 심어주신 작은 겨자씨에 대한 희망 안에서
하루하루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 날 하느님 나라를 바치는
커다란 사랑 나무가 되어 있을 것 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 공소사목 성금

서만공소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58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 림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안동 - 6월 23일,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6월 18일,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본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어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6월 예비신학생 모임

- 일시 : 6월 17일(주일) 12:00
- 장소 : 교구청

■ 주일학교 학부모 특강

- 주제 : "먹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배려"
- 일시 : 6월 24일(주일) 14:00~17:00
- 장소 : 교구청 대강당
- 대상 : 주일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주일학교 교사
- 준비물 : 필기도구
- 회비 : 1인 5,000원(당일 납부)
- 신청 : 6월 19일(화)까지 사목국

■ 안동교구 남북평화 정착 기원 미사

- 일시 : 6월 25일(월) 19:30
- 장소 : 안동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주례 : 권혁주 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
- 주관 : 안동교구 사회사목협의회

■ 전례봉사자 교육

- 일시 : 6월 30일(토) 10:30-16:00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교 두봉관
- 대상 : 각 본당 전례봉사자 전체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마감 : 6월 21일(목)까지 사목국으로

■ 제23회 농민주일 기념 특강

- 제목 : 생명의 밥상을 차립시다
(GMO 상용화와 농업 밥상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문경지구 7월 6일(금) 19:30 모전동 성당
북부지구 7월 13일(금) 19:30 휴천동 성당
- 강사 : 김은진 교수(원광대)

■ 제61차 청소년 성서모임

- 주제 : "너에게 맡기셨다"(사도 27,24)
- 일시 : 7월 27일(금)13:30-29일(주일)15:00
- 장소 : 문경 성보촌 유스호스텔
- 대상 : 중1 ~ 고2, 선착순 110명
- 참가비 : 1인 80,000원
- 준비물 : 성경, 주일 미사 준비, 간편한 옷, 물놀이 옷, 운동화, 필기도구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6월 17일(연중 제11주일) : 풍양 농촌선교 본당
- 6월 24일(성 요한 세례자 탄생 축일) : 송현동 본당

■ 꾸르실료 월레미사

- 일시 : 6월 18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아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제2회 안동가톨릭미술가회전

- 일시 : 6월 12일(화) ~ 17일(주일)
- 장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갤러리5
- 오픈행사 : 6월 12일(화) 18:00

■ 여성 제40차 꾸르실료 체험 신청 안내

- 일시 : 8월9일(목) 14사-8월12일 17시 [3박4일]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접수마감 : 7월 13일(금)까지
- 신청자격 : 영세후 3년 이상, 견진성사 받은 분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 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19:00 - 1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여름성음악연수(카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 주제 : 새 로마미사경본에 따른 미사송 지침 해설과 미사전례성가
- 내용 : 그레고리오성가, 오르간, 지휘, 성악, 성음악기초이론 및 작곡
- 일시 : 7월11일(수)~14일(토)
- 장소 : 가톨릭대 성심 교정
- 접수 : 010-4513-7605/010-6935-1181
7월 2일(월)까지 마감
- 연수비 : 40만원(교재, 악보, 숙식비 포함)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 관람 시간 : 09:00-18:00
- 미사 시간 : 매일 15:00
- 주소 :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270
- 문의 : 054-383-1922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7장

자녀 교육의 강화

신앙 전수

287. 자녀 양육에는 신앙 전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의 생활 양식, 노동 시간, 현대 세계의 복잡함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신앙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도록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례로 시작되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자녀를 낳는 어머니는 세례를 통하여 “거룩한 출산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새 생명이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앙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는 선물이지 인간 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부모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예수님께 또는 성모님께 입맞춤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한 행동에 얼마나 커다란 온유함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자녀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신앙 전수는 부모 자신이 참으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방식만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당신 업적을 기리고 당신 위업을 전하는 것”(시편 145[144],4 참조)이고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사 38.19 참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께 우리 자녀들 마음 안에서, 곧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활동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마태 13.31-32 참조). 이는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선물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잘 돌보는 관리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적 노력은 하느님의 계획에 협력하는 공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곧 어머니와 아버지를 교리 교육의 능동적 주체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가정의 교리 교육은 젊은 부부가 가정 안에서 복음 선포자라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도록 교육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288. 신앙 교육은 자녀 각자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과 비결은 때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표징과 몸짓과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은 흔히 권위와 규범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직접 신앙을 체험하고, 그 아름다움 자체로 설득력이 있는 빛나는 증언을 하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의 신앙을 키워주고픈 부모는 자녀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부모는, 영적 체험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유에 맞게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자신의 부모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가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때와 대중 신심의 표현은 그 어떤 교리 교육 수업이나 강론보다 더 큰 복음화의 힘을 지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자녀를 위하여 모니카 성녀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89.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신앙의 표현과 성장을 촉진하면 가정이 복음화되며, 스스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심지어 가정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신앙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면서 다른 이들이 그들을 친근하며 친절하다고 느끼도록 하고, 자녀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 선교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종종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드시고 마시시며(마르 2,16; 마태 11,19 참조),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요한 4,7-26 참조), 밤에 찾아온 니코데모를 맞이하여 주시며(요한 3,1-21 참조), 죄 지은 여인이 당신 발에 향유를 부어 바르도록 하셨으며(루카 7,36-50 참조), 아픈 이들에게 주저 없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마르 1,40-45; 7,33 참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이들을 무시하지 않았고,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로 무리를 이루지 않았으며, 자기 민족의 삶과 단절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이 박해하였지만, 제자들은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습니다(사도 2,47; 참조: 4,21.33; 5,13).

290. “그래서 가정은 사목 활동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역할은 복음의 확실한 선포와 다양한 형태의 증언의 유산, 곧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다양한 인간에 대한 개방성, 창조의 보존, 다른 가정, 특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과 맺는 정신적 물질적 유대, 공동선 증진을 위한 노력,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불의한 사회 구조의 변환, 그리고 자비의 육체적 영적 활동의 실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확신의 틀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성장시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시며 우리가 삶의 각각의 단계에서 모든 역경에 맞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케리그마’가 모든 가정의 한 가운데에서 울려 퍼져 길을 밝혀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우리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1요한 4,16). 오직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만 가정 사목은 가정이 가정 교회가 되고 사회에서 복음화의 누룩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계속 -



밥이 되어주는 삶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쉬는 날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주일인지도 잠시 잊은 채 늦장을 부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10시가 되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 바쁘게 준비하여 성당에 가 있어야 할 시간에 무슨 일인가? 반성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혈 대축일미사다. 때마침 어린이 세 명이 첫영성체를 하는 날이었다. 곧 미사가 시작되었고, 2독서를 첫영성체를 맞는 어린이가 하였다. 빨간 빵떡모자를 쓰고 빨간색 옷을 입은 모습을 보니 미래의 주교님 같았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독서를 얼마나 잘 하든지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주례사제가 첫영성체를 맞는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셨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인 성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첫영성체를 원합니다. 첫영성체란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몸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영성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친구로 하여, 언제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세 명의 어린이들과 신부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나는 지난날의 내가 첫영성체를 모실 때 드렸던 기도가 생각나 주님 앞에 앉아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들여다보며 성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성체에 관한 강론에서 신부님은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성체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부님께서 부산까지 자전거 투어에서 체험하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 곧 성체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성체는 곧 사랑이시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곧 사랑을 실천하였으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성체, 곧 밥이 되어 주는 것이라고 신부님의 경험을 담은 이야기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허둥대며 미사를 드리게 되었던 오늘 내게 깨우침을 주었다.

진정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 주는 것이라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도 떠올랐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 주며 살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밥으로 삼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들 안에서 특히 많이 느낄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흔히 있는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밥이 되어 잘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요즘 우리 집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힘들어 할 때나 아파할 때 나의 밥이 되어 준다. 내게 성체가 되어 준다. 요즘 남편의 행동에서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나의 밥이 되어주는 남편 앞에서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첫영성체를 모시기까지 어린이들은 하얀 밀떡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몸이 어떤 맛일까 하고 얼마나 궁금하고 기대에 부풀었을까? 첫영성체 전에 성체 대신 받아먹었던 달콤한 사탕 맛이 아니라서 실망했을 수도 있겠지만, 세 명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모셨던 예수님의 성체 맛이 그저 밋밋한 밀떡 맛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맛임을 깨닫고 성장하기를 기도해본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활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약속한 어린이들의 미래에 주님의 성체 축복이 이루어 졌으리라 믿는다.